

[書評]

일본에서 '아시아'는 어떻게 얘기되어 왔던가?

—子安宣邦(코야스 노부쿠미),

『'アジア'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近代日本のオリエンタリズム』, 藤原書店, 2003

徐光德*

한국의 '동아시아' 관련 학회에도 참가한 적이 있어 국내의 인문학 연구자들에 게 어느 정도 알려진 일본근대사상사 연구자 코야스 노부쿠미(子安宣邦)의 이 책은 저자가 '후기'에서 밝힌 바대로 잡지 『環』에 「동양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재 했던 글들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최근 문화지역개념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이전 일본의 '동아' 또는 '동양'이란 용어에 드리워진 오리엔탈리즘적 그림자를 철저히 탈각시키고 일본인들이 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근대 일본에서 '동양'과 '동아' 개념이 성립되고 유포되었던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사적 관점에서 '동아문명'이란 개념이 지닌 다원성을 어떻게 복원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동양'과 '동아'는 지리적 개념이지만 일본에서 이 두 개념은 분명히 정치적 역사적 개념이었다고 지적한다. "문명론적 '동양'개념이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이 개념도 아시아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자기 형성하는 제국 일본의 정치적인 자기표상과 불가분한 것이었다"(89쪽)고 말한다. 메이지(明治)시기 이래 일본이 하루빨리 전통적인 중화질서에서 탈피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수립해야함을 역설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이 문명론에 기반하여 일본과 아시아의 차이를 강조하고 특히 중국에 부정적인 타자상을 부여

* 延世大 講師

하였던 것의 반면에서 오키쿠라의 '동양'개념이 일본의 근대적 민족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동아'개념 또한 문화사적인 개념이었다. "'동아'문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명권에 포함되는 지역 가운데 중국이외의 나라와 지역에서 중국문명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시점에 의해 성립된 개념이다." (90쪽) 그런 점에서 "새로운 문화개념으로서의 '동아'는 지역내의 다원적인 문화의 발전을 예상한 것이다." (91쪽) 하지만 이러한 '동아'의 개념 역시 193.40년대 "제국일본에 의한 유럽적 세계질서의 재편성의 요구가 당시 일본의 철학자들의 유럽근대의 초극지향과 대응하면서 '동아' 개념은 세계질서와 세계사의 새로운 단계를 가르는 광역권 개념으로서 재구성된다." (189쪽) 하지만 이런 유럽적 세계질서에 대한 대항적인 '동아' 개념 또한 내부에 대립자를 넘어서는 계기를 자신 안에서 갖지 못한 관계로 제국 일본의 제국적인 일원화의 언설에 의해 본래적인 의미를 잃게 되고 급기야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버리고 말았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본래 문화적인 '동아' 개념이 지닌 다원성을 상실한 '동아' 개념은 결국 실체로서 "유기적인 일체성을 지닌 '동아'의 결합원리를 추구하면서 제국적인 언설로 구성되고, 이러한 '동아'는 결국 중화제국 혹은 일본제국의 대체물에 불과하게 될 뿐이었다" (195쪽)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페놀로사와 같은 서구의 인문학자들에 의해 일본의 고유문화가 재평가되고 여기에 고무받아 일본문화의 우수함을 선전한 오키쿠라의 미술사 이해를 떠올리면서 원래의 문화적인 '동양'·'동아' 개념 자체도 결국 "근대유럽의 인문과학적 시각에서 파악되고 그 학적인 체계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그 학적 방법으로 서술되어왔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동아'개념의 자명성 자체에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동양'·'동아'개념은 철저하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 "서양의 문명론적인 자기인식은 반서양으로서의 타자·동양을 비문명적인 세계로서 정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비문명적인 세계에서 탈피하여 문명의 세계로 편입되는 것을 목표로 한 일본에게 "전체와 정체의 중국은 아시아에서 非아시아로서의 일본, 근대화=문명화 일본의 자기차이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정립된 타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중국인식은 이후 "쇼와(昭和) 일

본의 지식인에게 중국에 대한 침략적인 군사개입을 중국사회의 해체와 그 갱신을 위한 역사적 실천이라는 정당화의 논리를 구성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非일본으로서의 중국의 정립은 후쿠자와에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근대화론이 기초했던 선형적인 차이화였던"(142쪽) 것이다.

이런 중국인식은 좌우를 막론하고 제국 일본의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이해방식이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인식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헤겔의 '동양적 전제' 나아가 막스 베버 그리고 맑스의 '아시아 정체론'으로 이어지는 서구의 동양적 시선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인식은 학술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후쿠자와 등의 문명사적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 구도는 헤겔의 '동양' 개념의 구성논리 위에서 또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적 구도이다. 아울러 근대일본의 아카데미즘에서 동양학의 동양에 대한 시각을 규정하며 그리고 헤겔에서 맑스를 경유하여 일본의 맑스주의에 있어서 동양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시각도 규정했다."(76-77쪽) 즉 유학과 공자교를 둘러싼 연구를 비롯한 일본의 지나학 역시 이런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자신의 고유문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이웃에 대한 인식 모두 서구근대라는 하나의 잣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저자는 '동양'과 '동아'라는 개념에 내포된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은 바로 서구의 방식 아니 서구의 원리를 그대로 아시아에 대입한 것에 다름 아니고 유럽의 '세계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던 1940년대 일본의 지식인들조차도 자기 이해에 충실하지 못한 관계로 결국 과시즘의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음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논의에 연동하기 위해서 즉 일본이 '동아시아'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동아'·'동양'이란 용어로부터 진정으로 탈피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와 관련된 논의가 지닌 비현실성 그리고 동아시아 삼국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본의 새역사교과서 즉 『국민의 역사』에 감춰진 一國文明史적 기도가 다시 현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국 근대국민국가가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동아’ 개념의 다층다중, 다양성에 주목하자.” 즉 “‘동아’라는 문화적 지역 개념은 모든 문화의 동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전개를 그 개념의 중요한 내포로서 지니면서도 중국에서 기원한 문명과 지역의 일체성을 파악하는 데서 성립했다.”(187쪽) 예를 들어 대만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유학’과 관련된 학술토론회는 바로 이와 같은 ‘동아’개념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동아시아’라는 지역개념을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 의한 다중다층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틀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동아시아’를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의 공통성에 선 지역개념으로서 생각하고 그 개념의 광역성에 의해 자국, 자민족중심주의를 상대화하고 이 개념을 경제에서 문화에 걸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다층다중의 상호교류의 관계틀로 만들어가자.” “이것은 ‘동아시아’를 국가간 관계로서 실체화하지 않고 생활자의 상호교류를 가능케하는 관계틀로서의 지역개념, 이른바 방법적인 지역개념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며, “제국일본의 패권주의에 의해 오염된 ‘동아’에서 새로운 ‘동아시아’를 우리들이 손으로 탄생시키는 길이다.”(104쪽)

잡지에 연재한 글인 관계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더러 눈에 띄지만 전체적으로 오염된 ‘동양’과 ‘동아’에서 탈피하여 진정 ‘동아시아’를 일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잘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고 있는 지역연대의 움직임에 대한 일본 지식인으로서의 반응이다. 또 일본근대사상사 연구자로서 일본의 근대가 어떻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타자화시켜 왔던가를 설명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중국 및 아시아 연구의 정치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과 관련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공동연구를 대안으로 요구한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1940년대 근대초극론자들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실제적인 ‘동아’ 개념이 지닌 일원성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동아시아’를 논의하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 또한 거울로 삼아야 할 부분일 듯하다.

동아시아내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이 때에 상대방(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입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 책은 하나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곧 한글로 번역되어 출판된다고 하니 동아시아 공동의 삶을 모색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중국을 연구하는 이들의 일독이 요구된다.